

김춘수

존재의 탐구와 무의미시

글 | 이승훈

그가 우리 문학사에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존재의 탐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미시'의 전개다. 그는 1950년대, 그러니까 전후 세대에 속하고 당대의 많은 시인들은 6·25로 폐허가 된 도시, 전쟁의 상처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외적 현실을 반영하고 도시적 삶의 어두움을 노래한다. 그러나 김춘수의 초기 시는 이런 외적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존재', '언어'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런 점에서 그의 시는 형이상학적 실존주의적 경향을 띤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물들이 존재하고 전통적인 시인들은 이런 사물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김춘수는 이런 태도를 거부하고 존재의 근거를 탐구한다. 그가 우리 시의 역사에 기여한 것은 이런 당연한 인식, 수용, 접수를 부정하면서 존재의 근거, 말하자면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노래한 점이다. 그는 꽃의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리고 타계 후 신문마다 무슨 유행처럼 그를 꽃의 시인으로 불렀지만 사실 그는 꽃의 시인이 아니다. 그는 생전에 어떤 수필에서 자신은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그의 서재엔 꽃이 없었다. 그는 생화가 아니라 조화를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요컨대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인공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전원보다 도시를 사랑한 도시파이고 이런 도시 감각이 모더니즘과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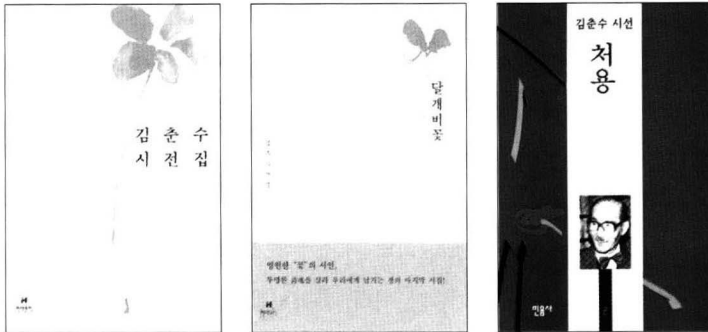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꽃의 시인이 아닌가? 그의 초기시를 대표하는 <꽃>은 꽃을 대상으로 했을 뿐 그의 꽃에는 아름다움도 향기도 빛깔도 없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영변 약산에

핀 꽃이고 여인의 마음을 상징한다면 김춘수의 꽃은 이런 구체적 특성이 없고 어디까지나 관념적이고 개념으로서의 꽃일 뿐이다. 그만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다. 그의 경우 꽃은 사물들의 제유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는 꽃을 노래한 게 아니라 꽃을 수단으로 사물들이 존재하는 근거, 이유, 조건을 관념적으로 노래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꽃의 시인이 아니라 존재의 시인이고 존재 탐구의 시인이다. 그가 오랫동안 입원했던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까운 벽에 간호원들이 꽃을 자주 걸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그의 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그의 시 <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자세히 읽으면 매우 어려운 시다.

예컨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같은 시행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서 시인은 '꽃'을 '그'라고 부르고 이때 '꽃'은 '나무'나 '항아리'나 '의자'로 치환되어도 관계없다. 요컨대 이 시가 노래하는 것은 꽃과 이름의 관계, 꽃과 명명의 관계, 꽃과 언어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언어의 관계다.

이 시에 의하면 꽃은, 그러니까 사물은 명명 이전, 곧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는 신비한, 모호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러니까 꽃이라고 명명했을 때 비로소 꽃으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사물과 언어의 관계를 노래하고 언어

김춘수는 1922년 경남 충무에서 출생하고 일본대학 예술과를 중퇴한다. 그는 1946년 부산에서 나오던 〈예술신문〉, 진주에서 나오던 문학지 〈영문〉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한다. 시집에는 《구름과 장미》(1948), 《눈》(1950)을 비롯하여 여러 권이 있고 1982년 '김춘수전집'이 간행되고 2003년 다시 '김춘수전집'이 현대문학사에서 간행된다. 유고 시집으로는 《달개비꽃》(2004)이 있다.



에 의해 사물이 존재한다는 철학적 명제를 노래한다. 요컨대 사물이 먼저 있고 그 후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언어가 먼저 있고, 먼저 있어야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시는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노래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김춘수에 의해 노래된다.

그러나 김춘수는 그 후 이런 시가 보여주는 지나친 관념성으로 괴로워하고 그의 말에 의하면 '관념공포증'을 앓는다. 사실 시는 철학의 관념적 진술이 아니고 사물의 존재 근거를 노래하되 이렇게 관념적으로 진술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감각적 특성을 형상화한다는 자각이 온다. 1960년대에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관념 과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고 이때 그가 강조한 것은 이른바 서술적descriptive 이미지의 세계다. 그러나 나는 '서술적'이라는 용어보다 '묘사적'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한 세계는 일체의 관념이 배제된, 소멸한, 사라진 사물의 세계, 말하자면 사물의 사물성thingness, 그러니까 어떤 의미나 관념도 비유하지 않는 이미지의 세계이고 이런 이미지가 노

리는 것은 사물의 감각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서술이 아니라 묘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김춘수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묘사의 극한까지 가고, 이 극한까지 가는 태도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 시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그저 적당히 가다 마는 데 있고 적당히 노래하다 마는 데 있다. 자신이 하는 작업에 대한 지적 성찰도 없고 극단까지 밀고 가는 창조적 정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발전도 없고 실패도 없고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다. 김수영이나 김춘수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두 시인 모두 적당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극단주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술에는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김춘수는 묘사의 극한에서 이른바 무의미 시를 강조하고 그것은 서술적 이미지와 자유연상이 결합된 시이고 그의 무의미 시는 그 후 탈 이미지, 통사 해체로 발전한다. 이런 무의미 시는 장시 〈처용 단장〉(1991)으로 완성된다. 지금도 말들이 많고 오해가 많은 이 무의미 시와 시론은 우리 현대시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다는 게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무의미 시론에 영향을 받고 이른바 비대상 시론을 쓴 바 있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무의미의 시와 내가 주장하는 비대상 시는 다르고 크기는 같은 방향이다. 도대체 시에 의미가 없다니 무슨 소리인가? 기호학적 시각으로 말하면 언어 기호는 기의와 기표로 구성되고 그가 노린 것은 결국 기의, 의미, 관념, 이데올로기를 죽이고 여기서 벗어나고 마침내 현실을 지배하는 언어 체계에 대한 해체다. **한우**

● **이 글을 쓴 시인 이승훈은** 한양대 국문과 및 연세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6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저서로 시집 《사물A》 《당신의 밤》 《너라는 환상》 《인생》 등이 있고 시론집 《시론》 《모더니즘시론》 《포스트모더니즘시론》 《해체시론》 《한국현대시론사》 《모더니즘의 비판적 수용》 등이 있다. 현대문학상, 한국시협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있다.